

군산시민문화회관 시민의 품으로

개관식 개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로운 시작 알리

군산시는 지난 6일 군산시민문화회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쳤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념하며, 지역 주민과 행안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재개관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 후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었다.

그러나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약 10여 년간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노력 끝에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군



산시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협력하여 공간 실험과 사회적 실험을 거쳐 재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민관협력형 운영 방식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고 공공이 관리와 감독을 맡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성공적인 운영이 전국 지자체의 공공 시설 관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재생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함께 지역 초·중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상영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익산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성료... 초·중생 570명 참여

명품교육도시 익산시가 영어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함께 지역 초·중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2018년 시작해 매년 높은 경쟁률과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간 출석률 90% 이상, 교육 만족도 80% 이상을 기록하며 참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영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지난 2월 시작해 필리핀 현지 교육센터의 원어민 강사와 주 2회 1:2, 1:4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40주로 구성된 정규 수업 외에도

△영어 문제 대회 △발표 대회 △해외 어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7일 열린 보고회에서 수강생, 학부모, 필리핀 교수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말하기 실력을 뽐내며 교육의 성과를 확인했다.

원광보건대 이광영 국제교류처장은 “지역 거점 대학으로 미래 사회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한 원광보건대학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 지원과 기반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도 익산, 전통의 아름다움 되살리다

금마·고도길 ‘고도 가로경관 개선사업’ 완료
노후 상가건물 29곳... 전통적인 외관으로 변신

익산시 금마면 고도지구가 전통적인 경관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시는 금마면의 금마·고도길을 중심으로 ‘고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금마길과 고도길의 가로변에 위치한 노후 상가건물 29개소에 △전면부 외관 외편 마감 △기와 지붕 △계자간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익산시는 지난 2022년에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13개소를 정비해 큰 호



익산시 금마면 고도지구가 전통적인 경관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응을 얻었다. 이에 추가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고도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국가

유산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한 주민은 “이번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고도 한눈에(愛) 익산세계유산센터 개관과 더불어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韓)문화발상지이자 백제의 수도로, 역사·문화적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도시”라며 “고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금마·왕궁면 고도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4년 주거복지 대전’ 우수지자체 선정

신혼부부·청년 대상 사업... 주거비 부담 완화·주거 향상 기여

익산시가 10일 ‘2024년 제4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와 지원 수요 발굴을 위해 매년 전국 기초지자체를 평가해 우

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익산시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사업과 주거지원센터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신혼부부·청년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신혼부부·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향상에 기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 제막식

열린민원 등 종합 평가... 2027년까지 지위 유지

군산시 종합민원실은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민원 처리 실태, 민원 서비스 운영, 민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군산시는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았고, 이번 재인증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유지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확인 (QR부호코드) 제작 △민원실 내 복카페 개선 △민원 취약계층 및 유·아동 동반가족전용 창구 운영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비치 △민원인 원터 및 실내정원 설치 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확충해 왔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은 시민의 편의 제고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원 환경 개선과 서비스를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승용차·버스 겸용 수소충전소 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승용차와 버스 겸용이 가능한 수소충전소 운영자를 공개모집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사업은 수소충전소 운영자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해당 부지에 군산시가 6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 차량 충전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이후 부지 제공자가 군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원 자격은 군산에서 주유소, LPG충전소, CNG충전소 중 하나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 중이며 1,500㎡ 이상의 가용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군산시청 새만금 에너지과(063-454-4413)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시내버스, 전북 자치도 서비스 평가 ‘우수’

익산 지역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도내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운수업체인 (주)익산여객(대표 강상진)과 (주)신흥여객(대표 김용원), (주)광일여객(대표 김성수)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는 매년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18개 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우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업체에 특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주)익산여객이 1위를 차지했고, (주)광일여객과 (주)신흥여객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어려운 경영환경과 근로조건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의미가 깊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분야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운수업체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